

중국의 대미정책과 북한문제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parkinss@daum.net

I. 머리말

중국과 북한은 시대를 막론하고 첫째,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 둘째, 공산당 일당 지배라는 정치체제의 공통점 셋째,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경쟁구조 등을 전략적 협력의 중요한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요소는 중북관계 속에 깊숙이 내재하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전략적 협력의 상수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중북관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과 대립의 구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중관계는 중북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 미중관계가 협력적일수록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좁아졌던 측면이 있고, 미중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북한의 외교적 공간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은 격화되는 미중대립 구조 속에서 상호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문제는 미중협력의 접점인 동시에 미국 견제와 협상의 수단(leverage)으로 작용한다. 이는 중국이 미중관계의 틀에서 북한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북한문제를 서구에 대한 영향력 수단의 일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중 대립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6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 주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에 찬성하고, 정상회담과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 미중 간에 북핵 이슈가 주요 논의 사안에서 벗어나고 이에 대한 협력 기조도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 기류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미중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미정책을 파악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북한문제의 성격과 중북간 상호 셈법을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II. 최근 미중경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

미중관계에서 북한문제가 점점 논의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양국 간 상호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날 직면한 미중경쟁과 양국 관계의 성격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국 간 협력 이슈로 존재하던 북한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배경에는 과거와 달라진 미중경쟁의 성격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펼쳐지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긴장과 대립이 ‘패권을 둘러싼 전략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패권이란 국제 질서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독점적 주도권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긴요한 가치, 목표 및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오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질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대적 쇠락을 보인 반면, 중국의 부상과 도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 결과 작금의 미중 패권경쟁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서방을 대체하는 자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을 창출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 서막이 열리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처할 새로운 비전의 형성과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비전을 제시해 국제 리더로서 중국의 역할과 이미지를 강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시진핑이 제20차 당대회(2022. 10) 연설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중국의 지혜와 방법’, ‘국제공평과 정의수호’, ‘진정한 다자주의 실행’, ‘일체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글로벌 안보·발전·문명 이니셔티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중국은 서구의 쇠퇴와

1)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No.67(February 2020), p.4.

중국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장하면서 국제 전략 환경이 백년 이래 없었던 대변국(百年未有之大變局)에 처해 있다고 강조한다.²⁾ 이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미중 대립이 중국의 시각에서 이미 패권을 둘러싼 전략경쟁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면한 미중관계의 또 다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국제 질서의 ‘신냉전’ 또는 ‘유사냉전’ 구도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긴장과 대립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으며,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23년은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본격화되었다. 돌아보면 미소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악마화 하거나 적대시하는 인식 속에 살았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이념과 체제 대립 상태를 유지했으며, 진영 간 대립구조 속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거부해 왔다. 오늘날 미중관계 역시 미소관계와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미중관계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미중관계는 갈등 속에서도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partner)’이자 ‘이해상관자(stake holder)’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게 중국은 ‘경쟁자(competitor)’,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공식화되었고 최근에는 ‘적(adversary)’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미중관계는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가치와 체제 및 이념의 대립상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립,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이 핵심가치이자 이념이다. 반면, 중국은 제20차 당 대회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당 독재체제를 핵심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과 ‘중국식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미중관계는 각자 자국 중심의 진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상호의존에서 선별적 상호결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QUAD, IPEF, 칩포(Chip4) 등 자국을 중심으로 정치, 안보, 경제 영역의 진영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 상하이협력기구, RCEP 등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이익’이라는 파이를 무기로 선별적인 ‘운명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2) “中国式现代化”关键词：如何理解与应对“百年未有之大变局？”(https://m.thepaper.cn/baijiahao_25624624, 검색일: 2023. 12. 12).

III. 중국의 대미정책에 대한 이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에도 시진핑 주석은 2023년 10월 9일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으며,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에서도 “중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항상 발전해 왔다”며 “중국과 미국이 접촉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충돌의 결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 따라서 중국에 대미정책은 언제나 가장 주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미관계는 갈수록 난제(難題)가 되고 있으며, 중국은 “협력의 여지를 제거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양회 기간 중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억제, 포위, 강압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공개 비판했다.⁴⁾ 친강(秦剛) 당시 외교부장 역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면 그 어떤 가드레일도 탈선과 전복을 막을 수 없으며 충돌과 대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⁵⁾ 중국은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화해를 원하지만 자신들이 정한 ‘레드 라인(紅線)’은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미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과 입장은 미중 대립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미중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시진핑의 미국 방문은 대중국 압박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있었으며, 미국에 대해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억압과 포위를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책임 있는 경쟁을 통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데 미중정상회담의 의도가 있었으며, 중국을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변할 수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충돌이 양측에 ‘재앙’이라는 공통 인식을 지니고 있으나, 패권을 둘러싼 전략경쟁을

3) 『新華通信』(2023年 11月 16日).

4) 『新華通信』(2023年 3月 7日).

5) 『外交部長秦剛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係回答中外記者提問』(https://www.fmprc.gov.cn/web/wjzbzhd/202303/t20230307_11037046.shtml, 2023. 3. 7).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100년의 마라톤을 달리는 중국’과 ‘주저앉히려는 미국’의 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거나 종료될 수 없을 것이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미중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억압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쉽사리 중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여론에 대한 부담을 의식하여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통한 첨단기술 산업 압박, 대중 수출 및 투자 통제에 따른 FDI 축소, 대만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⁶⁾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에서 ▲기후위기 대응 ▲군사대화채널 복원 ▲펜타닐 원료 제조 단속 ▲이란 제어 등 비록 ‘스몰 합의’이지만 미국에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다음 행동을 보겠다”는 생각이며, 공급망 배제, 대만문제 등 대중국 압박조치의 실질적 완화가 없을 경우, 양자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서는 당면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찾는 것이 상당 기간 중요한 숙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를 위해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와 국제법을 강조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공간을 개척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대미전략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글로벌 이니셔티브(全球倡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2021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글로벌 발전이니셔티브(GDI, 全球發展倡議)’, 2022년 4월 보아오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안보이니셔티브(GSI, 全球安全倡議)’, 2023년 3월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과 위급대화’를 계기로 ‘글로벌 문명이니셔티브(GCI, 全球文明倡議)’ 등을 주창하고 나섰다. 중국지도부가 이처럼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나선 것은 첫째, 시진핑 3기에 미국에 대항하여 해외 영향력 및 국제적 리더십을 확대하고 둘째, 이를 통해 미국과 서구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와 규범에 대한 변혁을 모색하며 셋째, 장기적으로 중국의 규칙과 규범이 표준이 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만들어 중국 주도의 중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박병광, 「중국시각에서 본 2024년 국제질서와 한반도에의 함의」, 공감한반도연구회세미나발제문(2023. 12. 14).

IV. 최근 미중관계와 북한문제

중국 지도부의 국제 정세 인식과 외교전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미국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 주도의 기존 국제질서와 제도에 대한 ‘보완적(complementary)’ 국제 규범과 제도를 제시하는 새로운 양상의 대응 외교로 진화하면서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더욱 고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시각 역시 중국은 더 이상 ‘부상하는 위협’이 아닌 ‘실제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국제 질서는 ‘부상하는 중국’에서 ‘도전하는 중국’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각축으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미국은 중국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을 굴복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세계의 견제와 압박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대미외교를 실행하면서 미중 패권경쟁과 러우전쟁에 따른 미국과 전통 우방국 들 사이의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중북, 러북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맞서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경제적 탈동조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편 만들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중북 양국은 미중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상호 공동인식과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진영 중심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북 간의 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다시 고위급 대면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자국을 추격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중국은 미중경쟁의 근본을 ‘힘(power)’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중국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고, 그 원인은 중국의 힘이 아직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은 소프트파워가 아닌 군사력 등 ‘하드파워’ 측면의 힘을 더 길러 미국을 뛰어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이 서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하는 첩경은 힘으로 서방을 ‘압도’하는 것이란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국방 및 군대현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힘을 키움으로써 ‘강군몽(強軍夢)’의 실현을 독려하는 것과 함께 미중갈등 상황과 대만 무력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내수·무역의 조화로운 ‘쌍순환(雙循環)’ 발전과 첨단 과학기술 자립 등을 통한 ‘자강(自強)’의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은 작금의 국제정세를 바라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서구세계와 중러 연합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미일 대(對) 중러북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김정은은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도래했다는 인식을 표출한 바 있다. 그는 연설에서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 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 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 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정세 인식하에 김정은이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러북 밀착을 추동한 것도 결국은 중북러 3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동향에 관하여 ‘내정불간섭’ 원칙을 방패 삼아 독자적 시각이나 입장 표출을 자제하면서 관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내심에는 러북 밀착이 정치적 협력을 넘어 군사협력 방향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북 군사협력은 자칫 북한의 도발 의지를 자극하고, 미국의 불필요한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러북 밀착으로 ‘중러북 3각협력’ 방향으로 나아가 역내에서 한미일 대(對)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다. 중국은 러북 군사협력 및 중러북 3각 군사협력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확대·심화하여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러시아의 입김과 안보 주도권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의 역내 및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⁸⁾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대미외교와 미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동향에 대해 대북 영향력의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편승하지 않는 것은 대미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한 측면이 작용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 태도는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관리해 나가려는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상반기(1~6월) 중국과 북한의 공식 교역액은 총 10.6억달러(수출 1억 3,508만달러, 수입

7)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2021년 9월 30일.

8) 박병광, 「러북 접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미중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2023 열린정책대화’ 발제문, 2023. 11. 24.

9억 2,454만달러) 2022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해서도 양국 간 경제적 협력 기반이 취약하여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유대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김정은 역시 2023년에는 외교적 무게 추의 중심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4년에는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V. 맺음말

중국과 북한이 상호 긴밀한 연대를 추구하는 주요 배경에는 국제 정세에 대한 공통 인식, 미중 패권경쟁 심화, 대북제재와 북한 경제난 가중, 미북관계 교착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국제정세 변화의 다양한 요인들은 중북 양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북관계를 밀착시킨 가장 중요한 외생적 변수는 미중 대립 구도의 격화라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대만문제가 돌출되고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의 필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교란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에 매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로 인해 역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데 대해 상당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지도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전통 우호와 더불어 뿌리 깊은 상호 전략적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제재 조치에 동참한다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양국관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언제든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설지 모른다는 우려와 불신이 잔존하고 있다.

한편, 미중 대립 구도 속에 커가는 중북 간 전략적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중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에서 북핵문제는 중심 의제에서 벗어났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찾아보기도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따른 유엔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과연 중국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리한 양국의 불신을 파고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신뢰 구축 및 전략적 소통 강화와 동시에 중국이 북한을 끌어안는 데 따른 국제 사회의 비판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적어도 북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한편, 중국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미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의 접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미중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병광,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No.67, February 2020.
_____, 「러북 접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미중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2023 열린정책대화’
발제문, 2023. 11. 24.
_____, 「중국시각에서 본 2024년 국제질서와 한반도에의 함의」, 공감한반도연구회세미나
발제문, 2023. 12. 14.

<기사자료>

-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新華通信』, 2023年 11月 16日.
『新華通信』, 2023年 3月 7日.

<웹사이트>

- “外交部長秦剛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係回答中外記者提問,”
https://www.fmprc.gov.cn/web/wjzbzhd/202303/t20230307_11037046.shtml,
2023. 3. 7.
“中國式現代化”关键词:如何理解與應對“百年未有之大變局?”
https://m.thepaper.cn/baijiahao_25624624, 검색일: 2023. 12. 12.